OE 방적사 - 링 방적사의 독무대에 새 원리의 실로 등장

예전에는 OE 방적사가 링 방적사의 낙면으로 실을 뽑는다고도 하여 링 방적사보다도 품질이 떨어지고 실이 부드럽지 않고 값도 싸다고 하여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었다. 지금은 소재 배리에이션(variation)이나 기술적인 혁신 등으로 좋지 않던 이미지가 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링 방적사보다도 오히려 태가 좋다고도 하고 거칠은 감이 있어서 좋다 등의 말도 들려 캐주얼의 흐름으로 OE 방적사도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다.

◎ 선랜드 - 독자적인 소재로 팬을 만드는 원사

주로 임방(賃紡)을 해오던 선랜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최근에 OE 특화사(特化絲)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이 회사는 오토코로(Auto-coro) 및 BD의 OE 정방기 3,968로터만을 돌리고 있다. 최근에 개발한 소재에는 이집트 초장면 기자(Giza) 70 45%、블루 리넨(blue linen) 55% 혼방사 “프락크스 기자 리믹스”가 있다. “블루 리넨”은 프랑스 북부의 노르망디 지방이 원산지로 “나타샤”라는 리넨의 품종을 개량한 고급 리넨이다.

마를 사용한 OE 방적사는 링 방적사와 비교하여 신도가 커서 제직하기 좋다고 제직 공장의 평이 좋다. 자연스러운 얼룩감이 좋은 평을 받고 있어, 데님 제직 산지에 팔아본 전례는 없지만 앞으로 팔아볼 작정이다. 이 외에도 울, 캐시미어 등의 수모(獸毛) 혼방이나 골풀(등심초), 파초(芭蕉), 재용면(再用綿)이 아닌 원면과 각종 원료를 사용하여 OE 정방기에서 뽑기 어렵다고

하는 세번수의 개발에 도전하면서 선랜드의 고객층을 넓히고 있다.

◎ 다이와보 - 철저한 원면 관리로 정성을 쏟고 있는 OE 방적사

다이와보의 자회사인 다이와보 머티어리얼즈(Materials)의 와카야마 공장은 OE 정방기를 약 1만 로터 가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BD가 7천 로터, 오토코로가 3천 로터로 되어 있다. 이 와카야마 공장에서 2003년에 BD로 실에 잔털이 적고 소프트한 OE 방적사 "에어 컴팩트(Air compact)"를 개발하였다. 잔털이 없어 깨끗하며 소프트하고 부피 큰 실을 만들기 위하여 정방기의 부품을 개조함으로써 OE 방적사의 거죽을 감고 있는 섬유를 최대한으로 줄인 구조로 개량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실로 제직한 천의 표면은 말끔하면서도 다크(dark)한 요소도 들어있다고 하며, 다른 실에서는 볼 수 없는 내추럴한 감을 풍기고 있다. 고객으로부터 혼방사 등의 요망에도 가급적 주문을 받고 있다.

또한 다이와보는 중국 쑤저우에 있는 합판(合辦) 봉제 거점인 다이와 침직복장(大和針織服裝)으로 수출하고 있는 "텍사스 세븐(Texas seven)"도 미면(美綿)으로 정성들여 뽑고 있다. 쑤저우 다이와에서는 T-셔츠로 환산하여 월간 50만매 생산하고 있는데, 산뜻한 느낌이나 드라이 터치(dry touch)가 좋은 이 원사가 T-셔츠 소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OE 정방기를 실용화한 다이와보답게 OE 방적사에 대한 애착심은 남달리 대단히 강하다. 원면에 대하여도 성숙도를 철저히 관리하여 염색에서 이색(異色)이 생기지 않도록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여 B급품이나 C급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결과적으로 고객의 신뢰를 받게 되어 많은 상담도 받고 있다.♣